

제10강 인식의 선형성과 인식에서의 주체의 역할 I

(1, 2교시)

인식론의 쟁점 1 : 인식의 선형성, 혹은 인식에서의 주체의 역할 (1)

- 흄, 칸트, 비트겐슈타인을 중심으로

* 지식의 선형성 문제

- 우리 인식에서 a priori한 요소가 무엇인가?
- a priori: 감각 경험을 기준으로 한 '보다 앞' (논리적 순서)

* 플라톤의 이데아론

* 베이컨의 이상론 : 선형적 요소에 대한 비판적 접근

- 1) 종족의 이상
- 2) 동굴의 이상
- 3) 시장의 이상
- 4) 극장의 이상

1. 선형적 요소는 심리적인 것이다 : 흄

* 감각 인상과 지식 사이에 갭(gap)이 있다. 이 갭을 메우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심리적 성향이다. 이것이 결국 선형적인 것이다.

(1) 인상과 관념

- 과거 관념으로 통칭되던 것을 인상(impression)과 관념으로 구분
: 인상과 관념의 차이는 힘과 생생함의 차이
- 직접 감각에 느껴지는 것 : 인상 - 구체적, 생생
회상할 때 살아나는 것 : 관념
- 복합 관념은 단순 관념으로 구성되고, 단순 관념은 단순 인상에서 나온다(원자론적)
- 모든 관념은 그에 앞선 인상에서 온다
예) 황금산 (복합관념) ← 단순관념 (황금 + 산) ← 단순 인상
→ 지식은 관념에서, 관념은 인상에서
- 지식은 관념들의 결합에서 생긴다
- 이 결합은 지성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고, 관념들 간의 연합(상) 법칙에 의해 생길 수도 있다 : 유사, 인접, 인과

(2) 인과성 분석

- 인과성(복합관념)
: 시공간적 근접성

- + 계기성(원인의 시간적 선행)
- + 필연적 연관(necessary connection) : ‘반드시’
- * “불이 났다”, 그래서 “연기가 났다”
- 필연적 결합(‘그래서’)에 대응하는 관념을 찾을 수 없다.
-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인상에 대응하는 관념은 불변적 결합(constant conjunction)의 관념이다 : 항상 규칙적으로 함께 경험된다.